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082]228-0180

생존년의 연인,  
**엄앵란이 찾아옵니다.**  
 대표강담실현 프로그램  
 광주지나 0621228-3222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0(土)	21(日)
흐린뒤 맑음 14 / 26℃	구름조금 15 / 27℃

- News**
- 5·31 '문근영 딜레마' ②
  - 출판계도 "대~한민국" ③
  - 주사랑의원 '인권 사랑' ④



- Economy**
- 60대 노후 대책 이렇게 ⑤

- Jeollado**
- 역사·월출산 도사와 도교 ⑦

-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 두름 ⑬

- Sports**
- 동강대 '공포의 외국인단' ⑮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지방선거 D-11 선거부정감시단 정명주씨의 하루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8일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인근에서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원이 선거운동 현장을 비디오에 담고 있다. 같은 조 감시단원인 정명주씨와 김기식씨는 얼굴 공개를 꺼려 사진촬영을 하지 않았다.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 “불·탈법 꼼작마”...24시 밀착 감시

“지방선거 불법·부정 행위는 우리가 맡는다.”  
 혼탁·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는 ‘선거지킴이’ 역할을 맡은 이들이 있다. 바로 지난 3월 각 광주·전남 시·군·구 선관위별로 발대식을 가진 선거부정감시단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만 모두 1천200여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 중에서도 광주시 동구 선거부정감시단원인 정명주(55·광주시 동구 산수동)씨는 “베테랑”으로 통한다. 2남 1녀를 둔 평범한 주부지만 선거부정만큼은 그녀 앞에서 ‘꼼작마’다. 정씨는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200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거쳐 이번 선거까지 4번째 선거감시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관이 돈과 학연·지연에 의해 흔들려지는 것을 항상 아쉬웠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내 손으로 선거 분위기를 바꾸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6년 전 처음 선거감시단에 지원했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정씨는 매일 오전 9시 동구선관위로 출근한다.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그날 할 일과 지역을 배정받은 뒤 2인 1조로 현장에 투입된다. 주로 그 전날 후보나 선거운동원들이 휩쓸고 다녔던

지역을 역순으로 살살이 훑어간다. 당연히 경로당이나 시장통 등 선거운동의 표적이 되는 곳이 정씨의 주된 활동 무대다. 정당이나 후보들의 유세장도 마찬가지다.

비디오로 선거운동 전 과정을 녹화해 위반행위 적발을 둘러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직접 후보들의 선거사무실을 찾아가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조사하기도 한

운동원 명함 배부 발견 등 내용이 깨알같이 적힌 수첩을 발견하면 정씨의 꼼꼼함에 놀라게 된다.

정씨가 이처럼 메모를 하는 이유는 하루 일과를 끝마칠 때마다 활동사항을 선관위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 6하 원칙에 근거해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한다지만 적지 않은 나이의 정씨에게는 그리 녹록치 않은 일이다.

정씨는 “처음에는 선거법을 잘 몰라 불법을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금은 어느 정도 감이 잡혀 요령이 생겼다”며 웃음짓는다.

정씨와 같은 조인 김기식(50·광주시 동구 지산동)씨도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김씨는 예비역 영관 장교, 케이블방송 대표 출신. 김씨는 “장교 출신이라서 연금도 많이 나와 경제적으로 아쉬운 게 없지만 특이한 일,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씨는 “선거후보자들이 이제는 우리의 얼굴을 알 정도”라며 “우리가 선거유세에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예방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 조금씩 선거 풍토가 개선되고 있음을 실감할 때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광주·전남지역서만 1,020명 활동 후보 휩쓸고 간 곳 살살이 되짚어 “선거풍토 개선 실감때 힘나요”

정씨는 “처음에는 선거법을 잘 몰라 불법을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금은 어느 정도 감이 잡혀 요령이 생겼다”며 웃음짓는다.

정씨와 같은 조인 김기식(50·광주시 동구 지산동)씨도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김씨는 예비역 영관 장교, 케이블방송 대표 출신. 김씨는 “장교 출신이라서 연금도 많이 나와 경제적으로 아쉬운 게 없지만 특이한 일,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씨는 “선거후보자들이 이제는 우리의 얼굴을 알 정도”라며 “우리가 선거유세에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예방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 조금씩 선거 풍토가 개선되고 있음을 실감할 때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씨는 “선거후보자들이 이제는 우리의 얼굴을 알 정도”라며 “우리가 선거유세에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예방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 조금씩 선거 풍토가 개선되고 있음을 실감할 때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씨는 “선거후보자들이 이제는 우리의 얼굴을 알 정도”라며 “우리가 선거유세에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예방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 조금씩 선거 풍토가 개선되고 있음을 실감할 때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씨는 “선거후보자들이 이제는 우리의 얼굴을 알 정도”라며 “우리가 선거유세에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예방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 조금씩 선거 풍토가 개선되고 있음을 실감할 때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실수 한 건이 선거 망친다” 후보들 ‘몸조심·입조심’

이원영·한화갑 등 잇단舌禍... 표심 요동

5·31 지방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실수에 의한 돌발 변수를 막기 위해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몸조심, 입조심’ 비상경계선에 들어섰다. 돈 공천과 전락공천 때문에 이어 최근에는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의 ‘5·18 질서유지군’ 발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산정권’ 발언,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한나라당과 공조’ 발언 파문에 이어, 5·18 전야 술자리 사건이 정치 쟁점으로 등장했다.

이같은 현상은 이번 선거가 5·18 26주년과 겹치면서 5·18 광주 표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야 정당의 선거 전략과 연결되면서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상대의 사소한 실수를 지나치게 정치쟁점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의 ‘5·18 발언’ 파문과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산정권’ 발언은 광주에서 상층세를 이끌어 수도권으로 연결하려 했던 열린우리당 선거전략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반대로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행한 ‘한나라당과의 공조가

능’ 발언은 여당의 공격 빌미가 됐다. 이번에는 지난 17일 밤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온 열린우리당 7명의 의원이 가진 술자리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가시돋진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5·18을 모독한 열린우리당이 반성은 커녕 광주까지 가서 5.18 관련 발언의 주인공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5·18 전야에 호텔 바에서 양주 술판을 벌였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열린우리당은 악의적으로 민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규의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추락하는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아니면 말고’ 식의 구태정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어제보면 사소한 말과 행동 실수라고 볼 수 있는 이같은 일들이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아직도 안정되지 않는 우리의 정당정치와 선거 상황에서 기인한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민銀, 외환銀 인수 강행

강정원행장 “22일께 론스타와 본계약 체결”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22일께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22일에 정부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강 행장은 외환은행 인수 안전에 대한 이사회 승인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론스타와 조인식 행사를 따로 갖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본계약 체결 이후 안전장치 여부를 놓고 가장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계약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금감위의 승인, 공정거래위의 심사 종료, 국제청 등 기타 정부 당국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선형조건 하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

제51회 호남예술제 미술·작문·논술 공모  
 접수기간 : 4월 25일 ~ 5월 25일까지  
 http://www.kwangju.co.kr

### 난, 변하고 싶어

가장 좋은 약은 사람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japharm.co.kr>

입술에 비타민을 주지

아름다운 입술  
**SENSTICK**

SENSSTICK이 신세대 감각에 맞는 이유  
 - 혁신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상급한  
 명품향 천연의 과일향이 오래 지속됩니다.  
 - 입술에,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되어 입술  
 치료효과 및 보습효과로 항상 생기가 넘칩니다.  
 - 그다만큼 위한 변신의 입술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변덕쟁이라구?  
 천만의 말씀!  
 난 싱긋하게 변하고 싶은 10대라구.  
 센스틱 뽀뽀행방이 있으니까  
 툭툭 터지는 멜론향과 새콤달콤한  
 과일향까지 - 입술이 변한다.  
 싱긋하게 -